'중생은 다 불성…' 여래장 사상

학술서 잇단 출간 '눈길'

불교철학의 본질 윤회·업·연기설등 분석

여래장 사상 日학자 논문 8편 번역

신라불교… 삼국시대 여래장사상 조명

대승불교의 핵심인 여래장(如來藏)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우리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학설. 이른바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말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이같은 여래장사상을 다룬 불교학술서들이 잇달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 동시에 출간된 조수동 경산대교수(동양철학)의 〈불교철학의 본질〉(이문 刊)과 다까사끼 지끼도 교수(駒澤대)의 〈여래장사상〉(경서원 刊)과 지난 4월 민족사에서 출간된 이평래 교수(충남대 철학)의 〈신라불교 여래장사상 연구〉등이 그것이다.

〈불교철학의 본질〉은 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윤회와 업사상, 연기설 등 불교철학의 특질을 조명한 연구서다. '여래장 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여래장사상을 집중 연구하고 있는 조수동교수는 여래장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법신이 일체만물에 두루 편만해 있다는 것 △진여(眞如)는 여래나 범부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것 △실천수행하면 누구나 다 여래가 될 수 있다는 것등을 든다. 따라서 "일체의 망령된 현상을 전개시키는 무명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진여성에로 귀입해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여래장 연기설이다"고 말한다.

종호스님이 번역한 〈여래장사상〉은 일본학자들의 여래장사상 관련논문 8편을 번역한 책이다. 일본 불교의 거의 모든 종파가 여래장사상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연구성과 또한 상당히 축적되어 있음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여래장사상의 역사와 문헌 △여래장의 체계 △불성·일천제(一闡提) △여래장의 믿음 △여래장과 아뢰야식 △티베트에 전하는 여래장사상 △여래장과 밀교 등의 논문을 통해 여래장사상의 전모를 파악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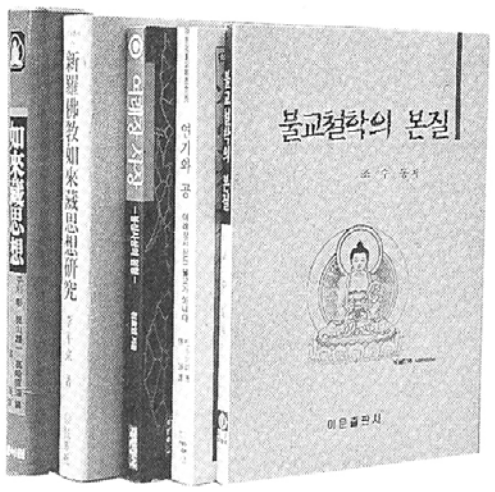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돼 주목을 받은 〈신라불교…〉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에 나타난 여래장사상을 중심으로 신라를 포함한 삼국시대의 여래장사상을 집중 조명한 깊이있는 학술서다.

지난해 출간된 마츠모드 시로우 교수(駒澤대)의 〈연기와 공〉(운주사 刊)도 관심을 끌었던 책이다.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는 주장을 담은 이 책에서 저자는 "여래장사상은 '연기' 및 '공'사상과 양립할 수 없다"며 여래장사상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극복을 통해서만 불교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었다.

한편 여래장사상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는 지난 93년 출간된 정호영 충북대교수(철학)의 〈여래장사상-불성사상의 원형〉(대원정사 刊)으로 알려져 있다.

여래장사상은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서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여시아문」 寺報 전시회 성황

국내 최초의 '寺報 전시회'가 불자들의 관심속에 개최됐다. 책방 여시아문 개업 2주년기념으로 지난 10월 23~29일 책방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최초의 사보인 〈도선법보〉(72년 5월 刊), 최초의 회보인 〈신행회보〉(61년 2월, 발행인 김동화) 등 20여종의 창간호를 포함, 80여종이 전시됐다. (본지 94호 12면 참조) 이번 전시회는 사보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유발을 통해 사보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친구여 우리 붓다가 되자' 저자 김호철 경위

일선 경찰관이 쓴 신행체험기

초급 경찰관부의 생생한 신행체험이 녹아있는 구도기 〈친구여, 우리 붓다가 되자〉의 저자 김호철 경위(29).

"호법신장이 되어 불법을 수호하고 부처님의 혜명을 잇겠다"는 원력을 세운 그는 현재 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경찰청불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주사대부고 불교학생회 후배들을 지도하는 등 불교 일을 본업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재가 수행자이다.

〈친구여…〉에서 김경위는 일상속에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결한 수행체험 사례와 불교입문자를 위한 게송 53편을 실어 일반 불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부처님 당시의 근본불교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경위는 "교학과 수행이 무르익으면 인간소외와 환경파괴, 사회윤리의 붕괴 등 현대문명의 병폐를 불교적으로 진단·처방하는 사상서를 내고 싶다"고 말한다.

본지 100호기념 '베스트불서' 분석

일타스님 '기도' 15주동안 1위

법어집·불교입문서·수상집등 '스테디셀러'

본지 창간호(94년 10월 15일자)부터 99호(96년 10월 23일자)까지 불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불서는 일타스님의 〈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방 여시아문 집계 '금주의 베스트 불서'의 1위에 선정된 횟수별로 살펴보면 일타스님의 〈기도〉가 15회, 김진태씨의 〈달을 담는 강물〉이 8회, 법정스님의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와 무비스님의 〈금강경 강의〉가 7회, 성철스님의 〈영원한 자유의 길〉이 6회, 틱낙한스님의 〈삶에서 깨어나기〉와 우학스님의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가 4회, 혜원스님의 〈삶은 苦가 아니다〉와 고은씨의 〈소설 禪〉이 3회 등의 순으로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 베스트불서는 법어집 수상집 소설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1위에 선정된 종수별로는 법어집이 7종, 불교입문서가 6종, 수상집이 5종, 소설이 4종, 詩가 3종, 경전이 2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교학술서와 만화 어린이불서는 각각 1종에 그쳤다.

〈재〉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위 선정 불서(2~99호)

1위 횟수	도 서 명	편·저자	출판사
15	기도	일 타	효 림
8	달을 담는 강물	김 진 태	해 냄
7	금강경 강의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무 비 법 정	불 광 샘 터
6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4	삶에서 깨어나기 생활속의 기도법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틱 낙 한 일 타 우 학	장 경 각 효 림 좋은인연
3	소설 禪 삶은 苦가 아니다	고 은 혜 원	창작과 비평사 여시아문
2	道 禪 백문백답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퀴즈 대장경 무소유 소설 등신불	김 정 빈 진 제 효 림 불교방송편성부 법 정 용 산	글 수 레 파란나라 대원정사 불 지 사 범 우 사 문학수첩
1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미라래빠의 십만송 나를 보게 하소서 아함법상의 체계적 연구 알기쉬운 불교 하늘 맑은 날 영가천혼 법어 달마의 제자들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 불타의 가르침 천수경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부처님 땅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가지	김 현 준 원 의 범 이 정 섭 현 장 고 익 진 편 성 부 성 우 성 우 고 우 영 데시마루 이 기 영 무 비 서 암 이정범外 용 산	교보문고 시 공 사 시 공 사 민 족 사 동대출판사 불교방송 토 방 토 방 불 지 사 장 승 불교진흥원 불 일 동 지 불 지 사 고려원미디어

승적박탈 파계승 연애소설 '엑스경'

소재·용어 불교왜곡 '물의'

출가와 환속을 반복한 파계승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현몽의 자전적 연애소설 〈엑스경〉(전 2권·문학수첩 刊)이 불교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 우려되고 있다.

〈엑스경〉은 불세출의 땡초, 허무의 독생자, 박가모니 등으로 불리는 현몽이 자신이 겪은 거침없는 파계의 행적을 여과없이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애정행각을 불교적으로 미화하는등 불교를 곡해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돈 떨어지고 인정 떨어지면 산으로 들어가고 기력을 회복하면 다시 저자를 헤맸다는 그의 애정행각은 "여섯살에 시작해 쉰에 이르도록 나그네 길목마다 만난 여인이 백팔 염주 알알인듯 꼭 백여덟명이고 그중 대표 여자가 일곱명으로 남았다. 엄청난 연애가 있었고, 엄청난 이별들이 지나갔다"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문제는 섹스가 삶의 목표인 듯한 그의 소설의 배경과 소재, 용어가 대부분 불교적이라는데 있다. 특히 '사랑 苦'니 하면서 "예쁜 여인이 있다면 성불도 내일로 미룬다"는 그의 연애론은 "중생을 다 제도하고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연상케 하는 등 '섹스의 불교문학적 포장'을 보여주는 불교 왜곡의 부분이 수두룩하다.

책 표지에 스님 복장을 한 저자의 모습과 섹스를 연상케 하는 책 제목을 보고 이 책을 읽었다는 한 불자는 "포르노를 방불케 하는 적나라한 내용과 잘못된 불교관에 아연실색했다"면서 "종단차원의 불매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동의 소설 〈만다라〉에 나오는 지산스님의 실제 모델로 잘못 알려진 현몽은 속성이 박씨로 열아홉에 출가, 입산과 환속을 거듭했으며 강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조계종단으로부터 승적을 박탈당한 바 있다.

〈재〉

이철수 판화집 英·獨語판 나와

이철수씨의 판화집 〈배꽃 하얗게 지던 밤에〉와 〈소리하나〉가 영문 독문판으로 각각 출간됐다.

영문판 이철수 禪시리즈 〈배꽃 하얗게 지던 밤에〉는 불교를 소재로 한 심오한 영적 세계와 초월적인 정신세계를 선화(禪畵)로 담아냈다. 특히 앉아서 열반에 든 스님의 모습을 그린 좌탈(坐脫)시리즈는 자연속에서 해탈과 성불을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준다. 독문판 〈소리 하나〉는 불교적 세계관을 통해 삶의 리얼리티를 구현하고 있다.

새로나온 책…

▲바람의 길(석지현 저)=승려 시인인 저자의 에세이식 구도기. 인도를 비롯 네팔 버마 미국 일본 등지를 순례하며 명상센터와 명상 구루(스승)들을 만나 종교와 철학을 토론하며 느낀 사색을 잔잔하게 썼다.

〈민족사 5천5백원〉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우학 저)=지난 5개월간 약 6만부가 판매된 〈저거는 맨날…〉시리즈의 완결편. 고려 때 실제 인물인 회정스님과 보덕각시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소설이다. 회정스님이 보덕각시와의 인연을 통해 성불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이 소설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속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진정한 성장을 하며 그 절대적인 사랑만이 모든 악에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인연 6천원〉

▲힌두이즘(R. C. 제너 저)=영국의 종교사학자 제너가 쓴 이 책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힌두이즘과 인도사상의 큰 흐름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저자는 (주)태평양 건강마케팅실 실장으로 재직중인 김종태씨(한국차학회 상임이사). 메시지가 "양심 속에 깊이 놓여있는 그대의 다르마(業)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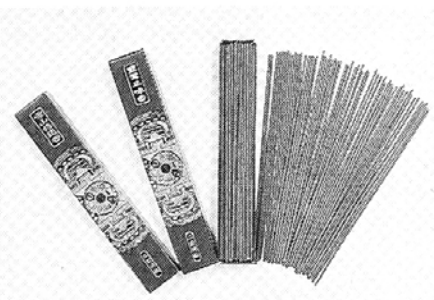
〈보림사 8천8백원〉

▲茶의 과학과 문화(김종태 저)=차의 역사와 문화, 식물학, 세계 차 산업 현황 등 차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담은 책. 저자는 (주)태평양 건강마케팅실 실장으로 재직중인 김종태씨(한국차학회 상임이사).

〈보림사 8천8백원〉

기사넘쳐 '명사추천 불서백선' 쉽니다.

二軾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눈이 따갑거나 목이 부어오르지 않습니다.
화장품이나 비누 냄새도 전혀 없습니다.
향기는 깊고 고상합니다.
24가지 천연약재와 귀한 백단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산수도향(雪山修道香)과 영취삼매향(靈鷲三昧香)은 불자님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합니다.
가까운 불교용품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이 시대 최고의 충격적인 신간

신비한 부적의 세계

부적이란

내가 만드는 행운의부적

운담 엮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께!

▲신년 대운을 잡는 비결부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비결부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인이 되는 비결부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부자가 되는 비결부
▲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인연성취 비결부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결부
▲삼재소멸 비결부
▲칼리지 않는 집, 땅, 점포를 잘 팔리게 하는 비결부
▲화·재앙을 피하는 법과 꿈해몽

운담 엮음/신국판/328쪽/값12,000원

침묵의 소리 홍명스님 지음 값 8,000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홍명스님 지음 값 7,000원

문화출판 침묵의 소리 전화: (02)444-3575, 5310 팩스: (02)3436-1064 문화출판 종로서적 전화: (02)732-5381 팩스: (02)732-6202

경 고 문

1996년 10월 9일자 현대불교신문(제97호)에 탈종공고를 낸 바 있는 최보살은 대승사의 주지스님과 신도들 승인 없이 창건주임을 내세워 갖은 이탈행위를 하고 있는 바, 대승사 사부대중은 물론 충남교구 산하 태고 종도들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최보살은 10년 전에 이미 창건주직을 정식으로 사임한 바 있고 현 주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지 임명을 받아 현재 충남 종무행정까지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지각하고 사탐한 이들이 사전에 대승사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또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고의로 대화를 회피하며 와해와 모략만을 획책하고 있어 대승사 주지와 신도, 충남 종도 모두는 통탄을 금할 수 없어 이에 엄중히 경고함과 아울러 탈종 무효공고를 낸 바 있다.

대승사 문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악한 무리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악업을 쌓고 있는 것인가를 인식하고 깊이 참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타종단이나 타인이 도량을 인수하려는 공작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와함께 사악한 이들의 이간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바이다.

이번 경고가 나간 후에도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사찰과 스님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의법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이후로 최보살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두는 대승사 도량출입을 일체 금지한다.

1996년 10월 일

한국불교태고종 대승사(충남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266-2)
주지 이 운 오, 신도회장 홍 화 자, 총무 김 진 순
한국불교태고종 충남교구 89개사찰 종도 일동